

82年 冬季CES의 家庭用機器 市場動向

美国의 冬季CES市場의 금년도 매출액은 약 150억弗로 推定되고 있다. 여기에는 50% 이상을 TV, 비디오 등의 家庭用機器 製品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가지 특징은 새로운 제품의 속출로 격심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向後의 이 部門 價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포타블 製品市場

1) 개요

美国의 Potable관련 商品市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이커는 하이파이市場의 정상급인 테크닉스社다. 그러나 年間 매상고가 거의 비슷한 日本의 파나소닉社의 라디오 카세트 부분은 금년도 매상에서 테크닉스社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산요가 뛰어들어 3파전의 각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격 경쟁

포타블 상품으로 현재 최고의 히트 상품은 워커맨으로 상징되는 헤드폰 스테레오이다. 美国市場에서 소니의 워커맨이 소개된 것은 79년말이다. 그 이후 80년에는 소니 외에 수개社가 이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일약 인기를 누리게 된 商品이 되었다. 작년에만 1,50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200弗 짜리 TV도 소니, 도시바, 아이와, 파나소닉 등 메이커에서 100弗 안밖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各社의 價格動向〉

○워커맨 플레이어

年間売出：1,600万台

日本 · 三洋	最小型카세트플레이어：MG 1	150弗
	AM / FM機能 : MG 2	200弗
	스테레오錄音가능 : MG 3	180弗
	스테레오미니스피커 : MG 4	200弗
日本·파나소닉	스테레오 쉬코 : RQ-J9	125弗
	스테레오 쉬코 : RQ-J11	80弗
	AM / FM, 스테레오錄音 RX-1950	200弗

○라디오 카세트(年 700~800万台 需要)

스테레오 타일 구매집중 : 150弗

(각社에서 200弗~300弗까지 고급機種 개발주력)

○클럭라디오(年 全라디오 需要 2,800万台, 클럭라디오 1千万台)

파나소닉社 TR-4060P : 200弗

파나소닉社 1.5"후백TV에 AM/FM기능
TR1000P : 300弗

3) 品目別 市場動向

□라디오 카세트 市場

카세트는 포타블 市場의 최대 상품이다. 모노 타일이 100弗까지 여러 형태다. 연간 700~800万台의 需要가 있으며, 인기 品目は 150弗 전후의 스테레오 타일이다. 그러나 최근 헤드폰 스테레오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공전되는 느낌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각社에서는 200~300弗의 고급機種에 힘을 기울여 최근에는 포타블 스테레오의 高價格을 형성하는 경합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치 퍼스널 컴퓨터의 경쟁과 같은데 業界의 고민은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의 혼란으로 각社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클럭라디오市場

라디오 카세트 다음으로 클럭라디오도 중요市場을 형성하고 있다. 美国에 있어서 쏠라디오 수요(카라디오 제외)는 연간 2,800만대 전후로 가격이 10弗, 30~40弗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클럭 라디오는 1,000万台 가까운 市場性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市場에는 파나소닉과 GE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GE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두가지 다른 시간을 세트할 수 있는 프로그래블 타이틀을 수년전부터 추진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冬季CES에서 선보인 파나소닉의 TR-4060P는 200弗의 가격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파나소닉의 또다른 제품으로 단추를 눌러서 볼 수 있는 4"의 흑백TV가 부착된 클럭라디오가 200弗이라는 高價格에도 불구하고 많은 商談을 받았다 또한 모델 TR1000P는 300弗의 고가격으로 1.5" 흑백TV를 AM/FM 기능에다 삽입시켜 자유롭게 휴대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초포타블 TV이다.

그의 TV(로드타일)를 내장한 JVC의 新製品 CX-710은 700弗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관심이 높았다.

□ 카 오디오 市場

작년의 美国 「Auto Sound」市場은 6~7 억弗로 추정되는 自動車메이커용의 소요품을 포함한 소매베이스가 20억弗이 된다. 그 가운데 소비시장용은 카 라디오를 제외한 아프트 마케트가 12억弗 전후로 판단된다. 작년의 자동차 판매부진, 경기후퇴, 등의 영향으로 거의 伸張이 없었으며 특히 OEM 상품이 고전한 반면 아프트 마케트의 앰프, 이퀄라이저 등 콤포넌트 카 스테레오가 큰 신장을 보였다.

□ 퍼스널 컴퓨터 市場

이번 CES에서는 지금까지 영향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퍼스널 컴퓨터가 금년에는 뚜렷이 부각되는 인상을 주었다. 22개社가 출품한 내용은 많은 양이 아니었지만 各社는 착실히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 홈 컴퓨터 市場에 기반을 닦고 있



는 추세다. 작년의 크리스마스 경기에 이어 비약적인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는 앞으로 적절한 가격협정을 통하여 市場을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 게임 소프트웨어 인기 집중

인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도 CES에서 전압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소프트웨어의 내용은 인버터 게임에 개량을 가한 복합게임과 백그맨이 인기의 중심이다. 이것은 응답의 속도가 빠르고, 화상의 선명도는 수년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게임센터의 아케이드머신에 필적하는 질을 보였다. 本体의 가격 저하와 소프트웨어의 충실로서 새로운 구매층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10代이하 소비자의 구매력을 유발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졌으나 지난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용으로 퍼스널 컴퓨터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의 변화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학습, 가격관리 등에 직접 실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퍼스널 컴퓨터의 상승 무드를 전개시키는 회사들은 아타리, 아텔, 일렉트로닉스, 코모들, 마그나복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다.

○ 各社의 低價格 機種

美 国	코모들(本体) 149弗	: 최저가격
	아타리(本体) 899弗	: 약 200弗引下
	휴렛패카드HP85(本体) 2,750弗	: 약 15%引下
日 本	도시바+100=판피아	} (本体) : 1000弗下廻
	파나소닉JR-100	

各社의 이런 가격경쟁에 의해 퍼스널 컴퓨터 市場은 앞으로 중요한 市場형성이 될것으로 전망된다.